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8. 선종의 사구계(3)

6조 이후에 정립된 계승이지만 이 사구 계야말로 육조혜능의 말씀인 <육조단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인 동시에 선의 황금시기에 다각도로 전개된 5가7종의 종지가 된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不立文字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고 敎外別傳 사람의 마음을 곧 바로 가리키니 直指人心 자성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見性成佛

사람의 마음을 곧 바로 가리키니 直指人心 외륜은 뛰어난 기량이 있어 臥輪有技倆

능히 백가지 생각을 끊고 能斷百思想 경계를 마주해도 마음일지 않으니 對境心不起 보리수가 나날이 자란다. 菩提日日長 -와룡

혜능은 별 재주 없어 慧能沒技倆 온갖 생각이 끊이지 않네 不斷百思想 경계 마주함에 마음 자주 일어나 對境心數起

응용으로 보았다. 자성과 관계없이 마음이 외경(外境)에 이끌리어 시시각각 변화하니 마음을 휘어잡는 것보다는 자성을 밝게 꿰뚫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돌이 아니라 일심(一心)이다. 이 마음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인 것이다. 혜능의 깨달음은 <금강경>의 '머무는바 없이 마음을 낸다(應無所住而生其心)'에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본원을 통견(通見)하는 돈오(頓悟)의 내용이다.

다. 그의 계승은 4행에서 보리수가 본체이고 마음이 작용이며 3행에서는 경계에 대해 마음이 일지 않으면 죽은 마음이니, 어찌 마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단지 무주(無住)로서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읽힌다. 그리고 혜능은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마시오. 이는 곧 법에 무입이니 변견(變見)이라고 합니다."(<돈황본단경>18) 라고 말한다.

"선지식!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바라밀을 생각하십시오." 잠시 후,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단지 이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바로 성불할 것입니다."(<육조단경> 제1 '오법전의')

이 말은 혜능이 조계의 보립에 이르렀을 때, 대법사 강당에서 베타 설법의 첫 마디며, <단경> 모두의 글귀다. 돈오법문을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바로 선을 아는 요체이다. 이제 혜능은 "지혜의 완성만 생각 하십시오"하고 대중에게 조용히 말한다. 그리고 "지혜자성은 본래 맑고 깨끗합니다. 단지 이 자성의 응용이 마음만 사용하십시오. 이러면 성불해 마칠 것입니다."

마음은 자성의 하수인 · 본체의 응용 '머무는바 없이 마음을 낸다'에서 기인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마음 사용하라"

보리인들 어찌 자랄까 菩提作麼長 -혜능 사실 혜능은 마음을 자성의 하수인이라 생각했다. 자성이 본체이고 마음을

위의 외륜의 계승을 한 승려가 혜능에게 매우 올바른 견해인 것 같다고 읊은 것인데, 혜능이 듣고 단박 견성하지 못하였음을 간파했다. 그래서 혜능은 외륜의 견해가 바르지 못함을 계승으로 답했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초심 백무산 | 실천문학사 | 6000원



백무산은 1973년부터 조선, 전기, 금속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시 쓰기를 한 시인이다. 그는 1984년 <민중시>에 노동자 정서를 탁월하게 형상화한 연작시 '지옥선'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첫 시집 <민국의 노동자>(1988)에서 "무슨 밥을 먹는가가 문제다/ 우리는 밥에 따라 나뉘었다/ 그 밥에 따라 양심이 나뉘고/ 윤리가 나뉘고/ 도덕이 나뉘고/ 또 민족이 서로 나뉘고" ('민국의 노동자')라며 밥에 따라 지금까지 영호남과 인종과 종교와 남북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외쳤다. 밥이야말로 계급적인 것이라며, "그대들은 무슨 밥을 먹는가"라며 애매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는 현재 시에 노동계급 의식이라는 당파성과 계급투쟁 정서를 운운시켜오고 있는 거의 유일한 시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노래하여 오면 그의 시에

최근 들어 불교 제재가 많이 발견된다. "자본주의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불교적 상상력을 통해 통찰하는 것이다.

폐사지의 가을 서 있는 것은 오직 돌탑 하나뿐 천지만물은 허물어진다든 걸

불교적 상상력으로 삶의 원리 통찰

빨고 나면 허물어질 말로 말해야 하고 허물어지기 전에 이미 무상함을 상을 지어 소리쳐야 했던 것은

세월의 풍상이란 건 없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허물고 허망을 허망으로 허물고 나서

긴 세월 돌탑 하나 남김 뜻은

허망에 머물지 말라고 마음 한 그루 남겼는가 - '마음 한 그루' 전문

폐사지에 가서 남아있는 돌탑을 보고 창작 동기를 얻어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의 주제는 "허망에 머물지 말라"이다. 창작자는 천지만물의 무상함을 폐사지에 남아있는 돌탑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반야경>에 모든 존재의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형상이 실존의 형상이 아닌 줄을 알면 여래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시인은 "세월의 풍상이란 건 없다"라고 단언한다. 모든 존재가 원래 허망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 경주 남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머리가 없는 돌부처를 보고 서정적 충동을 일으켜 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발상이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게 읽힌다.

머리 없는 돌부처님 바위에 앉으셨네 그 무슨 상관이냐고 처연히도 앉으셨네

놀이라 권부 내려놓이라 하셨으니 眼, 耳, 鼻, 舌, 身, 意 어는 것 하나 들고 제실까 여섯 도둑을 때려잡아 하셨으니 스스로 머리를 내려놓으셨나

그 어깨 위로 받으면 달이 앉았다 가고 구름이 잠시 보였다 흩어지고 봄밤 꽃 향기로 머물다 가고 지나가는 로케 노루머리도 잠시 없었고 아련한 새들이 앉았다 가더니 저녁엔 흰 눈이 소복이 내리고 나를 내려놓으니 나 아닌 것이 없노라는데

내 어깨다 오가는 산길에 계신 머리 없는 부처님 그 길 지날 때면 나는 초심을 하네 내 머리가 어깨다 지기 없으면 몸통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 '머리 없는 돌부처' 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

8 법성계전

두릅은 산채의 제왕(帝王)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두릅은 두릅나무의 어린 순을 말하는데 가지 끝에 달린 산채란 뜻으로 목두채(木頭菜), 늙은 까마귀발톱 같은 가시가 있다 하여 자노아(刺老鴉)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두릅의 종류에는 나무두릅, 민두릅, 땅두릅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두릅은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릅과 같은 산나물은 농약이나 인공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의 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영양 또한 뛰어나다. 특히 봄철 춘곤증에는 입맛을 돋우는데 두릅이 최고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또한 두릅을 유난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파랗게 데쳐낸 두릅의 짭짤한 향을 즐기지 않고 어찌 불맛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무두릅은 참두릅이라고도 불리

는데, 전국의 산기슭이나 골짜기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3-6cm 정도의 크기에 타원형 혹은 계란형의 잎에 톱니가 있고 형이 뾰족합니다. 두릅나무의 껍질은 당뇨병과 신장병의 약재로 쓰입니다.

사람에서도 봄철 귀하게 먹는 두릅은 흔히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짭짤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싱그럽습니다. 혹은 산적을 만들거나 튀겨서 초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면 향기 진하게 우려냅니다.

오늘은 두릅으로 '법성계전'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대산 신흥사에서는 재일 법회 중에 법성계를 들고 나서 옮겨가 적힌 절편과 두릅, 두부를 넣어 만든 법성계전을 먹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래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그 맛을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두릅나무 껍질 당뇨 등 약재로 사용 산채의 제왕...입 맛 돋우는데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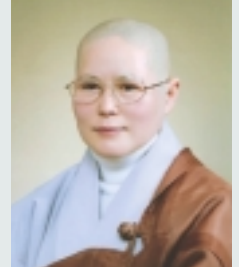


법성계전

재료: 두릅, 밀가루, 참기름, 깨소금, 두부, 된장

1. 두릅은 연한 소금물에 파랗게 데쳐서 포기를 나눠둔다.
2. 두부는 으개어서 깨소금, 참기름으로 간하고 두릅을 넣어서 같이 버무린 후 된장으로 간을 맞춰서 문힌다.
3. 밀가루는 반죽해서 전을 부치고 그 위에 두릅과 두부 무친 것을 그 위에 얹게 편 다음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서 먹기 좋게 썰어서 참기름에 소금을 넣은 기름소금에 찍어먹는다.

얼굴에 분 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학도들이 흔히 쓰는 시화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활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정심보덕스님 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055)962-3931 / Fax 055)962-3920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물질만능주의에 찌들고, 지쳐가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집을 꾸미게 되었다는 보덕스님,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견불사에 오늘도 한결같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한다.

백련앞에 청개구리

정심 보덕스님 詩集

천정무구의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청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의 명상시집.

